

제 목	국 문	한국인에서 수유의 여성 유암 보호효과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 문	A Case-Control Study on Protective Effect of Lactation against Breast Cancer among Postmenopausal Women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유근영 ¹⁾ , 노동영 ²⁾ , 최국진 ²⁾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2)의과학교실	
	영 문	Keun-Young Yoo, Dong-Yong Noh, Kuk-Jin Choe <i>Departments of Preventive Medicine and Surgery</i> <i>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종 양	발 표 자	유 근 영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1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모유 수유의 유방암 보호효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의 유암 보호효과를 역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1989년 1월 이후 1992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여성 유암 환자 162명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명이 암이 아니며 동시에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150명의 병원환자 대조군 그리고 환자와 가까운 친구, 친척 혹은 환자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중에서 선정한 149명의 지역주민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 연구결과

폐경에 이른 여성으로 만삭분만 경험이 있는 여성에 국한하여 볼 때, 유암발생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란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모유 수유의 유암발생 보호효과는 인정되었다. 즉, 모유를 수유한 자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암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병원환자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4명이상인 경우 0.13배까지 ($\chi^2_{\text{trend}} = 4.2$, $p<0.05$) 그리고 지역주민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0.77배까지 그 위험도가 감소하였다($\chi^2_{\text{trend}} = 1.2$, ns). 만삭분만으로 출생한 자식을 모유로 수유한 총 수유기간의 경우도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첫 아이를 모유로 수유한 기간도 길면 길수록 유암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4.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폐경기의 만삭분만 유경험 여성에서는 모유 수유가 유암발생에 독립적 보호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보호효과는 첫 만삭분만 출산아에 대한 수유에서도 양-반응관계를 보였다.